

고양문화재단 지역지원센터... 중·고생 창작 프로젝트 시행

2009년 08월 25일 (화)

이준배 [✉ acejoon@kyeongin.com](mailto:acejoon@kyeongin.com)

[경인일보=이준배기자]고양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9월부터 미디어 영상제작 교육 '꿈꾸는 미디어 스쿨'과 글과 책쓰기를 통한 통합 인문학교육 '푸른 영혼을 위한 책쓰기 워크숍' 프로그램을 등 창작 프로젝트를 시행한다.

이번 프로그램은 중학생 방송반 학생을 포함해 관심이 있는 중·고생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.

'꿈꾸는 미디어 스쿨'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방송영상과 전규찬 교수를 중심으로 어울림누리 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을 오가며 총 7회에 걸쳐 미니 다큐멘터리 제작을 주제로 교육프로그램 이 진행된다. 기획, 촬영, 편집, 제작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실습하고 참여자 각자가 감독, 연출자, 촬영감독, 작가 등 스태프로서의 역할을 경험하게 된다.

'푸른 영혼을 위한 책쓰기 워크숍'은 10년 넘게 책따세 모임을 이끌어 온 허병두 교사의 멘토링으로 5회 동안 학생교육이 진행된다. 특별히 읽기와 쓰기 교육을 지도하는 중·고등학교 교사를 위한 특 강도 마련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.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(www.artgy.or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 문의:(031)960-9683